

『정청래號』 출범...광주·전남 정치 지형 변화는

『의원 vs 당원』 표심 갈려... 컷오프 폐지 여부 주목

다수 지역 의원들 박찬대 지지 불구 당원은 정청래 쏠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입지자들 '공천물' 이해득실 분주 일부 정치인들, 능력보다 당대표 연출·진분 과시 우려도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수장에 강성 천명(친이재명) 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에도 적잖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지역 의신(議心·국회의원 표심)과 당심(黨心·권리당원 표심)이 갈리면서 입지자들은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물 등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지난 2일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권리당원(55%)·여론(30%)을 반영한 최종 득표율 61.7%로, 박찬대

는 전국 득표율에 비해 정 후보는 4.75%p 높은 반면 박 후보는 그만큼 낮았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 측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기초·광역의원 상당수가 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른바 '조직표'가 박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주권정부에 발맞춰 '당원 직접 민주주의' 강화 메시지와 개혁 드라이브가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1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광주는 2명, 전남은 3~4명 정도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박찬대 후보 측에 섰다. 여기에 상당수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박 후보 측에 합류하면서 '표심몰이'에 주력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표심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대표의 공천 물 등에 대한 입지자들의 유·불리 셈법이 분주해졌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앞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이른바 '노컷 당 대표', '컷오프 폐지'를 제시했다. 일단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를 걸러내고,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다소 절차가 불편하더라도 컷오프 없이 모든 입지자들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 대표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의 계보로 분류되는 상당수 현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유력하지만, 새로운 당대표의 '컷오프 폐지' 방침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치 신인들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신인들은 현역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당내 여론조사 등에서 1차적으로 컷오프 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하지만 '노컷'이 새롭게 도입된다면 당내 경선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등 그동안의 정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갈등 요인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경선 불복 잡음 등 악순환도 줄어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자격 미달 정치인들의 난립으로 무작위적 경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 검증위 등을 제대로 가동하면 될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탈락자가 없게 하기 위해 컷오프 폐지를 호남공천 혁신안으로 제시한 만큼 공천 장난이나 특정한 컷오프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당 부분이 사라져 운동장은 넓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별써부터 일부 출마자나 정치인들의 경우, 정청래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정청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별써부터 정 대표 측에 줄섰던 일부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능력보다 당대표의 연출이나 진분을 과시하고 있어 각종 잡음이나 당대표 선거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첫 행보로 나주 수해현장 찾아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이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에 미안한 마음... 민주화 희생 보답”

호우피해 현장 복구 활동... 전현희·김병주 등 동참 “민심과 호흡... 지역현안 정부에 전달 역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첫발인 호남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해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다워지기 전에 빨리 일을 해야 한다”며 침수돼 썩은 오이 줄기와 폐비닐을 밖으로 걷어냈다. 전현희·김병주·황명선 최고위원과 신정훈·서삼석·장경태·주철현·권항열, 박균택·이성운·한민수 의원 등도 조를 나눠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6~22일 나주에 내린 비로 9230건·147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은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슬픔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김영록 지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축하 국립의대 설립·신재생에너지 허브·제2우주센터 유치 등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앞으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전남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축하문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

사위원장,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개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국에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약하며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고, 22대 대선 당시엔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호남 골목골목을 누비며 역대급 투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 박정렬 기자 hoibu@gwangnam.co.kr

대표 비서실장 한민수·정무실장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

회를 갖고 이 같은 당직 인선을 했다고 권향열 신임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한민수 신임 비서실장은 당 대변인도 역임해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며 “정무실장에는 경제 전문

가이기도 한 김영환 의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정 대표가 전남 지역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현장에서 (저와) 호흡을 맞춰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대변인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기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1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순간의 실수, 평생의 후회.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 되돌아옵니다. 최대 징역 10년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범죄입니다. 허위 입원 / 허위 진단서, 간병비 부풀리기, 도수치료 기강한 미용시술, 고의 사고, 과장된 수리비 청구.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임협회, 생명보험협회.